

저자 (Authors)	양상현 Yang Sang-Hyun
출처 (Source)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1(2) , 2005.2, 101-108 (8 pag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1(2) , 2005.2, 101-108 (8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건축학회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81006
APA Style	양상현 (2005). 창건연기설화(創建緣起說話) : 사찰건축에 신성(神性)을 부여하는 언술적(言述的) 방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1(2), 101-10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18 11: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창건연기설화(創建緣起說話) : 사찰건축에 신성(神性)을 부여하는 언술적(言述的) 방편

A Legend of Temple Construction: Narrative Way to Input Sacredness to Buddhist Temple

양 상 현*

Yang, Sang-Hyun

Abstract

Many Korean traditional Buddhist temples have legends related with their temples' construction which comes down for a long time. The legend on the temple construction is one of the ways to input sacredness which architecture could not self-generate, to Buddhist temple.

Background why the Buddhist temple built on the site are included in these legends, such that the temple site was the land where Buddha had been stayed at in the past, or where miracle had been appeared at the site, or supreme being had been assigned for that site. Within these legends, order of space had been acquired through religious fighting against heretic or evil dragon which occupied holy space, and sacredness of Buddhist temple had been supplemented by Buddha or Bodhisattva's help in the process of temple construction. Story of life sacrifice and death appeared in these legends is a narrative way to add permanent sacredness to Buddhist temple.

A legend on temple construction is *upāya (tool)* that choose a particular region in this world and declare Buddhist temple a sacred space.

키워드 : 창건연기설화, 사찰건축, 신성, 희생공회

Keywords : Legend, Buddhist Temple, Sacredness, Sacrifice

1. 序 ; 연구의 목적과 범위

내려 있는 여느 사찰마다 관련된 설화 한 두개는 구전되어 내려오기 마련이다. 사찰에 몸담았던 고승의 행적이든가, 사찰 및 주변의 자연물에 관한 내력, 사찰을 배경으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 중 상당수는 사찰의 창건과정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역사적 기록이 매우 미흡한 창건 시의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찰에 부여한 당대인들의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전승되고 있는 설화들 중 이와 같이 사찰의 건축과정과 관련한 내용이 중심서사(中心敘事)를 이루고 있는 설화를 창건연기설화(寺刹緣起說話)¹⁾라 부른다. 건축의 이해에 있어서 사찰의 건축과 그 인연을 둘러싼 언술(言述)은 물리적 실체로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특정의 영역을 설명해주는 훌륭한 통로가 된다.

본 연구는 사중(寺中)의 구전(口傳)이나 기록물을 통해

여 전승되고 있는 창건연기설화에 대한 고찰²⁾을 통하여 시각적, 혹은 공간적 이해의 표층에서 나아가 사찰건축에 대한 전통시대의 인식적 심층에 다가가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설화가 기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고증이나 창건과정의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연기설화에 나타난 사찰 창건과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사찰을 중심으로 한 승가 집단 및 주변 신도군과 그 계승자들이 사찰건축에 부여한 종교적 관념을 파악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2. 창건연기설화의 이해

2.1 창건연기설화의 성격

설화는 일반적으로 신화(神話), 전설(傳說), 민담(民譚)으로 구분된다. 신화가 태초의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무대로 민족적 범위에서 신봉, 전승되는 이야기라면 민담은

2) 본 연구가 검토한 주요 불교설화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한국 불교전설 99(최정희 편, 우리출판사, 서울, 1986), 한국사찰에 얽힌 이야기(전영진 편, 보경문화사, 서울, 1994), 전통사찰의 창건설화(서문성, 도서출판窓, 서울, 1997). 이 자료집 들 중 서문성의 것은 전영진의 책을 상당부분 가감하지 않고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三國遺事와 한국불교사찰사전 및 각 사찰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1) 창사설화(創寺說話), 창건설화(創建說話)라는 명칭도 쓰이나, 사찰이 건립된 인(因)과 연(緣)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창건연기설화(創建緣起說話)'라 부르기로 한다.

전승자(話者)나 수용자(聽者) 모두 그 진실성을 가정하지 않고, 흥미를 위주로 ‘꾸며낸’ 이야기이다. 이에 비하여 전설은 이야기의 연대, 사건의 발생장소, 주인공 등이 명시되어 전승자와 수용자 모두 진실이라 믿고자 하며, 스스로 역사화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이야기의 내용에 있어 무엇인가의 형성, 유래 등을 진부(眞否)와 관계없이 설명하려는 특성을 지니며, 사건의 서술에서 자유로운 화술을 보임과 동시에 비약이 빈번하기도 하다.³⁾

창건연기설화는 전설의 한 갈래로 그 일반적 속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1)연기설화의 배경으로서, 창건을 즈음한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며, 사찰이 건립된 물리적 장소가 공간적 무대가 된다. 2)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로서 실재하는(했던) 사찰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실체를 제시하며, 이와 결부되어 역사적 인물이나 연못, 바위 등 사찰 주변의 자연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3)그 전승의 범위에 있어 해당 사찰을 포함하는 신앙적 유통 범주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그 주인공으로는 불교적 신격⁴⁾과 그 사자(使者)의 역할을 맡는 동물, 승려, 범인(凡人)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사찰의 창건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이 들 중 최고의 지위는 불신격(佛神格)이 가지며 이들에게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창건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 역시 모두 이들로부터 시발한다. 4)창건연기설화의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불교적 사유를 벗어나지 않으며 연기설화의 궁극적 결말은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창건을 완수함으로써 불사(佛寺) 공덕으로 원만히 귀의한다. 5)전승 주체에 있어 연기설화의 전승자는 당해 사찰의 승려 집단을 중심으로 하며 재가 신도이거나, 불교에 우호적인 화자(話者)가 포함된다. 이 전승자 군은 이야기의 신성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하여, 포교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다.⁵⁾

2.2 연기설화와 사찰건축

그렇다면 설화의 적극적 유포를 통하여 연기설화의 전승자들이 사찰에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설화의 해석을 통하여, 사찰건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전통적 관념은 어떠한 것인가.

연기설화가 대상으로 삼는 사찰건축은 종교적 공간으로서 신성(神性)한 곳, 불토(佛土)⁶⁾를 지향한다. 사찰이

종교적 목적에 봉헌되는 성전(聖殿)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그 자체에서는 ‘신성(神聖)’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신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그 창출은 신격(神格)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신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신적 존재일 따름이다. 사찰이 신적 존재와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언어를 통하는 것이다. 뒤프레의 견해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징이 종교적 상징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룩한 것을 직접 이름할 수 있는 것은 언어뿐이다. 왜냐하면 오직 언어만이 어떤 상징이 비종교적 맥락에서 지칭하는 실체가 아닌 다른 실체를 명확하게 의미할 수 있을 정도의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⁷⁾

종교적 건축물로서 사찰의 창건은 곧 신성한 불토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나 돌과 나무, 흙 등 지상의 일상적 재료를 가지고,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에서 신성의 현현(顯現)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눈앞에서 신비로운 이적(異蹟)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설명과 전제 없이도 사찰의 신성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의 건축에서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상에서 신성의 입증은 오로지 언술(言述)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불교의 대표적 언술이라 할 교리와 경전이 부처와 불성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면, 종교의 중심적 과제에서 비커난 종교적 상징물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술적 수단이 요구된다. 사찰이 단순히 불상의 안치소, 승려들의 거처가 아니라 신성한 불토로 인증받기 위한 언술적 방편으로써 바로 연기설화가 필요하였다. 연기설화는 신적 존재와의 관련을 부단히 주장함으로써 사찰에 신성을 부여하여 건축을 완성한다. 이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연기설화를 살펴, 사찰의 창건과정을 되짚어 보기로 하겠다.

3. 창건연기설화의 해석 : 성소(聖所)⁸⁾의 구축

창건연기설화에 서술되고 있는 사찰의 건립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실제 사찰의 조성 과정에 있어, 먼저 사찰 터를 선정하고, 그 곳을 건축에 부합하도록 정지(整地)한 후, 축조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사찰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연기설화 역시 이 같은 과정의 전개에 상응하여 해석될 수 있다. 사례와 함께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자.⁹⁾

3) 최윤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서울, p.p.17-21, 1991

4) 부처(佛)와 보살(菩薩)은 물론 신인(神人), 산신령(山神靈)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신적 존재들을 가리킨다.

5) 당해 사찰의 신성성과 권위를 높이려는 이러한 의지로 말미암아 때로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사찰의 창건과 무관한 인물이 창건연기설화에 등장하기도 한다. 창건설화의 기술 내용에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해석과 검증의 작업이 주의 깊게 요구된다.

6) 좁은 의미에서 佛土는 佛國土와 동일한 뜻으로, 부처가 다스리는 이상세계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속계에 대응하여 불교에서 상징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7) L.K.뒤프레, 권수경 역,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서광사, 서울, p.102, 1996

7) 이 글에서 성소(聖所)는 문자 그대로 성스러운 장소, 즉 속계(俗界)와 구별되어 특별히 신성화된 장소를 의미한다. 서구에서 인간의 접근이 차단된 특별한 신성장소를 성소라 부르는 전통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8) 본 논문에서 설화의 내용 소개는 최대한 간략히 요약하고자 하였다.

3.1 성소(聖所)의 발견

건축의 시작은 그 터를 정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사찰이 들어설 대지를 확정하는 문제가 신성(神聖)과 관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사찰이 엄숙하고 초월적인 종교적 실천의 공간이라는 인식과 관련한다. 연기설화는 당해 사찰의 건립 장소를 불법(佛法)을 전하기에 마땅한 인연과 당위성을 가진 땅으로 서술하여 장소의 성화(聖化)에 기여한다.

속세의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신성한 장소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발견될 수 있을 뿐으로, 성소를 찾는 일은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특별한 인연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드넓은 지상의 대지에서 특정한 성소를 발견, 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창건연기설화의 내용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별된다. 첫째는 사찰의 터가 이미 불교적 인연을 가진 성지라는 주장이며, 둘째는 비범한 신적 존재가 나타나 신성한 장소를 점지하여 주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사찰 터를 구하는 이에게, 특정한 땅에서 신령스러운 이적과 기이한 현상이 발견되어 이를 성소로 확정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 각각을 살펴보자.

(1) 전불인연(前佛因緣)의 성지

사찰의 건립지가 이미 과거부터 부처가 주재(駐在)했던 자리라거나 지금도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성지라고 하는 주장이다. 삼국유사는 과거칠불(過去七佛)⁹⁾ 중의 하나인 가섭불의 연좌석이 황룡사 터에 있으므로, 황룡사가 곧 석가 이전 시대의 일곱 가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연지라고 서술한다.

“옥룡집(玉龍集)과 자장전(慈藏傳) 및 제가의 전기에 모두 말하기를, ‘신라 월성 동쪽, 용궁의 남쪽에는 가섭불의 연좌석(宴坐石)이 있다. 그 곳은 전불시대의 가람터이니, 지금 황룡사의 지역은 곧 7가람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연좌석은 불전 후면에 있으며 전에 한번 참배한 바 돌의 높이는 5-6자 가량이며...”(三國遺事 권3 塔像 臺山五萬眞身 條)¹⁰⁾

연기설화를 통하여 석물(石物)이 성소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설화를 통하여 장소가 신성해지는 동시에 설화의 진실성을 장소(유물)가 증빙하는 구조이다. 삼국유사의 월정사(月精寺) 연기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자장이 문도들과 함께 오대산에서 정진하자 문수보살이 가림, 비로자나불로 화하여 이르기를 ‘여기로부터 30여리를 가면 내가 20겁 전에 1만 보살에게 설법을 하던 장소가 있으니 그 좌정했던 곳에 13층탑을 조성하고 1만법기 보살들이 앉았던 장소에 절을 창건하라’고 명한다. 이에 그 자리를 잡아 절을 창건하여 월정사라 하였다.”¹¹⁾

월정사 터가 이미 비로자나불이 1만 보살에게 설법하

던 깊은 불연(佛緣)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월정사에서 강(講)하는 자장은 비로자나불에, 그 설법을 듣는 문도들은 보살에 등가(等價)된다.

사찰 터가 과거칠불 가람지라는 주장은 금산사(金山寺)에서도 되풀이된다. 금산사오층석탑중창기(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에 의하면 이 절은 과거불인 가섭불 때의 옛 터를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²⁾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하여 사찰의 입지가 범상한 곳이 아니라, 부처와의 오랜 숙연을 바탕으로 한 신성한 땅임이 설파되고 있는 것이다.

(2) 신적 존재로부터의 점지(點指)

불보살이나 혹은 도에 이른 고승, 산신(山神)과 같이 신성을 지닌 존재가 터를 점지함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던 자리가 새로이 신성한 장소로 변모하는 것이다. 범인(凡人)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소가 신격에 의해 적시(指示)되는 것이다. 낙산사(洛山寺)와 관련하여 삼국유사는 다음과 같은 설화를 전한다.

“의상이 굴에서 재계(齋戒) 중에 관음(觀音)의 진신(眞身)을 친견(親見)하였는데, 관음이 말하기를, ‘산마루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곳에 불전을 지으라.’고 이른다. 의상이 굴에서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 나왔다. 여기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대나무가 도로 없어지며, 관음의 진신이 주처(住處)하는 곳임을 알았다.”(三國遺事 권3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 條)¹³⁾

의상의 기도에 감응하여 관세음보살이 직접 의상에게 사찰 터를 점지하고 있다. 관음상을 봉안하자 대나무가 없어진다는 설정은 관음의 신성이 그대로 불상에 이입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격으로부터 지정받은 신성한 땅과 신성이 이입된 불상, 그리고 신격을 친견한 의상의 건축행위가 얽혀 사찰의 신성함이 더욱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쌍계사(雙溪寺)의 연기설화에는 신격의 점지와 더불어 동물이 그 사자로 등장한다.

삼법(三法)의 꿈에 중국의 육조대사 혜능¹⁴⁾이 나타나 자신의 정골(頂骨)을 가져다 동방의 ‘설리갈화처(雪裡葛花處)’에 묻어줄 것을 이른다. 삼법이 당으로 건너가 육조 혜능의 정골을 수습하여 돌아와, 그 터를 찾자 금강산과 한라산을 돌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지리산으로 들어오니, 호랑이 한마리가 길을 인도하여 흰 눈이 쌓인 겨울인데도 눈 속에서 뽕꽃이 만발한(雪裡葛花) 곳을 찾으니 이곳에 혜능의 머리를 묻고, 이후 진감국사가 쌍계사라는 절을 창건하였다.¹⁵⁾

득도 해탈하여 신적 지위에 오른 혜능의 지시에 의해 사찰의 터가 지정되고 있으며, 거기에 혜능의 정골이 안치되었다고 믿어짐으로써 장소의 신성성은 더욱 보장된다. 또한 삼법이 그 터를 찾아 여러 곳을 헤매었다는 기

9) 석가모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범맥을 이어 온 일곱의 부처로 가섭불(迦葉佛)은 여섯째에,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마지막에 해당한다.

10) 一然, 이민수 역,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서울, p.263, 1994

11) 이민수 역, 앞의 책, p.338. 서문성, 전통사찰의 창건설화, 도서출판 窓, 서울, p.359. 이정 편,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서울, p.498, 1996

12) 고고미술, 제129,130호 p.126. 한국불교연구원, 금산사, 일지사, 서울, p.18, 1977. 재인용

13) 이민수 역, 앞의 책, p.322

14) 혜능(慧能). 중국 선종의 제6조로써 홍인(弘忍)대사에게서 법을 받아 남종선을 일으켜 이후 중국 선종의 발원이 된다.

15) 서문성 편, 전통사찰의 창건설화, 도서출판 窓, 서울, p.36, 1997. 한국불교사찰사전, p.401

술을 통하여 성소를 찾는 노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드러낸다. 여기에 더하여, 전통적으로 영물(靈物)로 추앙된 호랑이가 신의 사자(使者)로 등장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미황사(美黃寺)는 남해안가의 사찰로, 대웅전(大雄殿) 창건과 관련한 연기설화가 숙종18년(1692)에 민암(閔黯, 1634-1692)이 지은 ‘미황사사적비(美黃寺事蹟碑)’에 진한다.

신라 경덕왕 8년, 한 석선(石船)이 달마산 아래 사자포구(獅子浦口)에 와 닿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의조화상(義照和尚)이 문도들과 함께 해안가에 가 기도를 올리자 비로소 석선이 물에 닿았는데, 그 안에는 금인(金人)이 노를 잡고 서 있었으며, 경전과 불상이 가득하였다. 또한 배 안의 흑석이 벌어지며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날 밤 의조화상이 꿈을 꾸었는데 금인(金人)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우진국(優填國, 인도) 왕으로서 두루 다니며 경상(經像)을 모실 곳을 구하다 여기에 이르렀다. 마땅히 소에 경을 싣고 가,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 곳에 경(經)을 봉안하라’고 이른다. 이에 의조화상이 소에 경을 싣고 가는데, 산골짜기에 이르러 크게 울며 죽으니 이 골짜기에 미황사(美黃寺)를 짓고 경과 상을 봉안하였다.¹⁶⁾

역시 신격에 필적하는 신령한 금인이 사찰 터를 지정하고 있으며, 불교의 원류인 인도로부터 경(經)과 상(像, 불상)이 전해졌다는 설정을 통하여 사찰의 근본이 지닌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 속의 석선(石船)은 부처를 모셔 온 배로서, 곧 반야용선(般若龍船)¹⁸⁾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 경과 상을 봉안하기 위하여 지은 전각도 반야용선이 된다면 설화가 제시한 상징적 설정이 완성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징 장치를 미황사 대웅전 기둥의 초석에서 찾을 수 있다. 미황사 대웅전 모서리의 초석에는 거북이 조각되어 있고 그 옆의 초석에는 게가 조각되어 있다. 게와 거북이 노닐고 있으니 초석과 그 아래의 기단은 바다를 상징하게 되며 초석 위에 서 있는 불전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되는 것이다(그림1 참조). 불전 어칸 양쪽의 기둥머리에 용의 조각이 몸을 빼고 나와 있어 이 배는 바로 반야용선에 해당한다. 설화 속에서 바닷가에 나타났던 반야용선을 그 상징대로 지상에 옮겨 온 것이다. 대웅전의 내부 벽체 상단에 수많은 부처를 그려 놓았는데, 이른바 천불이라고 한다. 대웅전에 참례하는 대중과 더불어 반야용선의 승객이라고 할 것이다. 이야기 속의 설정을 건축으로 완성하여 연기설화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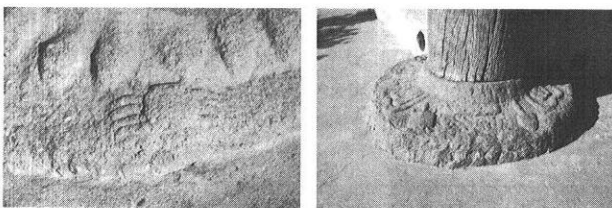


그림 1. 미황사 대웅전 초석, 게와 거북

16)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6, 전남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서울, pp.496-499, 1996. 서문성, 앞의책, p.141. 한국불교사찰사전, p.186.

17) 중생을 고통의 바다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주는

이 외에도 신격의 점지를 통하여 사찰의 창건지를 정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견되는 바, 그 대표적인 설화들만 간단히 소개하겠다.

ㄱ. 양산 내원사(內院寺) : 원효가 천명의 대중을 이끌고 수도할 장소를 찾던 중 원적산(지금의 천성산) 산신(山神)이 마중 나와 그 터를 점지한다(宋高僧傳).¹⁹⁾

ㄴ. 승주 송광사(松廣寺) : 문수보살이 해린(慧麟)대사에게 나무어, 석존의 명이라며 가사와 발우, 불사리를 전하고, 전라도의 송광산이 불법을 전할 터이니 절을 세우라고 명한다.²⁰⁾

ㄷ. 서울 봉원사(奉元寺) : 찬춤 스님이 절을 옮기려 백일기도를 마치는 날, 여인으로 화한 관세음보살이 사찰 터를 일러주어 반야암 자리에 도량을 일으켰다.²¹⁾

ㄹ. 속초 신흥사(神興寺) : 백발 신인이 출현, 삼재(三災)가 미치지 않는 터를 점지하여 창건한다.²²⁾

ㅁ. 예산 향천사(香泉寺) : 황금빛 까마귀 한 쌍이 날아와 머리위를 맴돌며 길을 안내하였다. 덕봉산 기슭에 그 새가 내려앉은 고로 그 자리에 절터를 닦았다.²³⁾

이상의 연기설화에서 사찰의 입지를 점지하는 존재는 관음 등의 불신격(佛神格)이거나, 부처의 명을 받은 신인(神人), 혹은 득도한 고승들이다. 불회사, 향천사 등에서는 신이한 동물이 터를 점지하기도 한다. 신격(神格)을 통해 장소를 점지 받음으로써 사찰의 터전은 신성한 권위를 보장받게 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설화들은 입지를 지정하는 신격의 종류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 신격의 점지가 등장하는 창건연기설화 분류

점지의 주체	연기설화 대상사찰
보살, 부처의 명을 받은 신인	낙산사, 용화사, 송광사, 청련사, 백련사, 봉원사
신인, 산신령, 고승	미황사, 쌍계사, 내원사, 영담사, 정암사, 보문사, 신흥사, 기림사
신이한 동물	운문사, 향천사, 불회사

(3) 신령한 이적(異蹟)을 통한 성소의 발견

연기설화에서 사찰 터를 찾는 주인공은 종종 부처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신령한 이적(異蹟)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부처의 모습이 나무거나 불상이 출현한 곳에 사찰을 세움으로써 사찰이 신성을 보장(保藏)한 성지라는 인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신비로운 이적이 보이는 곳 역시 일상의 속계(俗界)가 아닌 특별한 성소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남해 용문사(龍門寺)에는 다음과 같은 연기설화가 전한

배로서 부처의 지혜(般若)로서 방향을 잡고, 호법(護法)의 용(龍)으로 몸을 삼아 바다를 헤쳐 가므로 반야용선(般若龍船)이라 한다.

18) 서문성, 앞의책, p.55. 최정희, 앞의책, p.118

19) 최정희, 한국불교전설99. 우리출판사, 서울, p.235, 1986. 서문성, 앞의책, p.170

20) 서문성, 앞의책, p.302

21) 위의책, p.352

22) 최정희, 앞의책, p.64. 서문성, 앞의책, p.275

다.

신라 애장왕 3년, 원효가 한 마을을 지나다 큰 연못에서 이상하고 신비한 영기(靈氣)가 오색구름과 함께 하늘로 치솟아 찾아가 구름 속에서 청룡과 황룡이 나타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절을 지어 용문사라 하였다.²⁴⁾

사찰의 입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신령한 이적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장소의 특별한 신성에 대한 유력한 증빙이 된다.

의상이 동해안에서 불사의 인연지를 찾던 중에 선묘룡이 나타나 지금의 천축산으로 길을 인도한다. 산에 이르자 선묘룡이 멈추어 이제부터는 손수 절터를 찾을 것을 권한다. 8일간 천축산을 돌며 절터를 찾던 의상이 지쳐 쉬던 중에 마침내 연못 위에 부처의 형상을 발견하니, 노인이 나타나 이 산이 부처가 천축산에서 계실 때의 모습이며, 주변은 영산회상이 융화된 것이라 전한다. 이에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난 곳에 무영탑을 세우고 절을 창건하여, 부처의 모습이 비친 인연을 따라 불영사(佛影寺)라 하였다.²⁵⁾

위 불영사의 연기설화에서 주목할 것은, 선묘룡(善妙龍)이 나타나 돕게 되나 사찰 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으로 하여금 직접 최종적 장소를 찾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성한 장소를 발견하는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고행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로써 장소가 지닌 신성이 타당해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이한 이적의 출현과 관련하여 삼국유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체로 자장이 세운 절과 탑이 10여 곳인데, 세울 때마다 반드시 이상스러운 상서(祥瑞)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드는 포색(蒲塞, 남자 신도)들이 거리를 메울 만큼 많아 며칠이 되지 않아서 완성했다.”(三國遺事 권4 慈藏定律)²⁶⁾

이적의 출현은 사찰이 건립될 장소를 성소로 간주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소문의 전파로 말미암아 노동력과 재화가 원활하게 모아짐으로써, 실질적 효과까지 거두게 된다. 설화가 갖는 이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신이한 이적의 발견을 통하여 사찰 터를 선정하게 된 내력을 언급하고 있는 연기설화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ㄱ. 대구 동화사(桐華寺) : 십저 스님이 간자를 던지니 신이 노래를 불렀으며, 때 아난 오동나무 꽃이 눈 속에서 만발한 곳에 꽃하므로, 여기에 절을 지었다.²⁷⁾

ㄴ. 경주 굴불사(掘佛寺) : 경덕왕이 백팔사에 거동할 시에 땅 밑에서 열불하는 소리가 들려 파보니 사방불이 새겨진 큰 돌이 나왔다. 이에 절을 세우고, 부처를 파내었다하여 굴불사(掘佛寺)라 이름하였다.²⁸⁾

ㄷ. 문경 대승사(大乘寺) : 죽령 동쪽에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큰 돌이 떨어졌는데, 사면에 여래의 상이 새겨져 있었다. 진평왕(眞平王)이 이 말을 듣고 절을 세워 대승사(大乘寺)라 하였다(三國遺事 권3 塔像 四佛山掘佛山萬佛山 條).²⁹⁾

ㄹ. 익산 미륵사(彌勒寺) : 무왕이 부인과 함께 용화산(龍華山)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나므로 절을 짓게 되었다. 왕이 지명법사에게 못을 배울 방도를 물으니 지명은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헐고 못을 배워 평지를 만들었다(三國遺事 권2 紀異 武王 條).³⁰⁾

ㅁ. 보은 법주사(法住寺) : 진표의 명으로 제자 영심과 용종이 길상초가 난 곳에 사찰을 창건한다(三國遺事 권4 意解 關東樞岳 鉢淵蔽石記).³¹⁾

ㄴ. 영일 보경사(寶鏡寺) : 지명이 신라에 돌아와 창건 터를 찾고자 왕과 함께 동해안에 이르자 보살 모양을 한 오색구름이 인도하는 곳에 다다르니 아름답고 장엄한 계곡 사이에 고요하고 넓은 연못이 나타나 금당 자리인 줄을 알게 되었다.³²⁾

뚜렷한 비밀상은 신성과 관련된다. 어떠한 이적이거나 신이한 상태가, 일상으로 간과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할 때 그 장소는 신성한 곳으로 간주된다.³³⁾ 민간에 전승 확산되는 연기설화를 통하여 사찰이 입지한 땅이 본래 신성한 곳이라는 주장은 효과적으로 유포된다. 이들 설화 속에서는 사찰의 터 잡기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인연이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신성한 장소를 발견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입지의 신성성이 확보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다. 신성은 아무런 노력 없이 범인(凡人)에 의해 우연히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영사, 정암사, 청련, 백련사, 쌍계사, 기림사 등의 연기설화에서 보이듯, 장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금강산과 한라산을 돌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쌍계사’, ‘고행 길에 올라 1년여를 헤매는’(기림사) 노력을 진력한 연후에야 비로소 신성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지날수록 장소의 신성성은 드높여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모든 유형의 성소들은 항상 거대하고 무질서하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속(俗)의 공간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³⁴⁾ 사찰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땅은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속의 공간을 섭렵하며 신성의 장소를 탐색하는 노력과 이에 감응하는 신비로운 징표의 도움에 의해 ‘발견’될 수 있을 따름이다.

3.2 성소의 점유와 질서화

성지를 발견한 이후에는 이제 그 터를 점유하여 정비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선택된 공간을 질서화 하는 일이

29) 이민수 역, 앞의책, p.282. 서문성, 앞의책, p.88

30) 위의책, p.196

31) 위의책, p.418

32) 한국불교사찰사전, p.230. 최정희, 앞의책, p.216. 서문성, 앞의책, p.91

33)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신성한 사건에는 광야, 떨기나무, 음성, 계시된 이름 등 몇 가지 낯익은 요소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낯익은 것들은 낯선 것들과 대단히 깊이 섞여 있어서(불타고 있으나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등) 아무도 그것을 일상적인 사건으로 착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상적인 회화를 벗어나 신적 속성이 획득되고 있는 것이다. 뒤프레, 권수경 역,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서광사, 서울, p.119, 1996

34) 엘리야데, 박규태 역,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서울, p.191, 1991.

24) 서문성, 앞의책, p.50

25) 서문성, 앞의책, p.112

26) 이민수 역, 앞의책, p.397

27) 최정희, 앞의책, p.213. 서문성, 앞의책, p.138

28) 한국불교사찰사전, p.74

곧 건축행위라고 하는 엘리야데의 지적³⁵⁾은 사찰의 터잡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못을 메우거나, 장소를 정화하는 공역(工役)이 전개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연기설화가 상당수 존재한다.

사찰 터 안의 연못에 살고 있던 용과의 투쟁이 언급되고 있는 설화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 중 유점사(楡岾寺)의 연기설화를 소개한다.

인도에서 53불이 동으로 와, 절터로 삼은 곳에 이르니 용 다섯 마리가 큰 연못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53불과 용이 재주다툼을 벌여, 부처가 못의 물을 끓게 하자, 용이 뜨거워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 사찰을 창건할 수 있었다. 유점사 뒤에 있는 오룡굴로 용이 울면서 들어갔다고 전한다.³⁶⁾

통도사(通度寺)의 연기설화에서도 자장이 ‘불화(火)’자를 쓴 종이를 못에 던져 물을 끓게 함으로써 독룡(毒龍)을 물리치고 사찰을 창건하는 이야기가 전하며,³⁷⁾ 불영사(佛影寺)의 창건 과정에서 의상은, 부처의 영상이 떠오른 연못을 발견하고 절을 지으려 하였으나 못에 살던 독룡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주문을 외워 독룡(毒龍)을 쫓고 용지(龍池)를 메운 후 절을 지었다고 전한다.³⁸⁾ 불교에서 용은 대부분 호법룡(護法龍)으로 등장하지만, 위의 설화들에서는 그 반대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인도의 신화적 기원에서, 토착신이었던 용이 불법에 귀의함으로써 불법을 수호하게 되는 것처럼, 토착적 신앙체계 내에 존재하던 용을 대립과 투쟁 끝에 불교가 포섭하는 구조로 짜여 있는 것이다.

금산사(金山寺)의 연기설화에는 용의 축출과 더불어 연못을 메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진표가 창건 시에 연못을 메워 터를 닦고자 하였으나 일이 진척되지 않았다. 이를 염려하여 백일기도를 올리던 중에 미륵과 지장이 강림하여 ‘이 호수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으므로 바위나 흙으로는 메우지 못하니, 솥으로 채울 것이며, 호수의 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면 만병통치의 영험을 입을 것’이라 전한다. 이에 과연 목욕을 하니 병이 나았고, 병자들이 앞 다투어 솥을 넣자 호수가 메워져 금산사 터가 닦였다.³⁹⁾

택리지에 전하는 이야기도 내용은 같으나 솥 대신 소금이 등장한다(擇里志 卜居總論 山水 條).⁴⁰⁾ 해독과 방부의 기능으로 민간에 알려진 소금과 솥이 독룡을 퇴치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부석사(浮石寺)에도 선묘룡의 도움으로 바위를 뜨게 하여 미리 터를 차지하고 있던 권종이부(權宗異部)의 무리를 몰아내고 부석사를 창건하게 된다는 이야기(宋高僧傳 義湘傳)⁴¹⁾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설화적 서술을

실재했던 사실로 만들고자 하는 몇 개의 장치가 부석사에 부가되어 있다. 무량수전 밑에는 커다란 바위(석룡)가 묻혀 있어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아래에서 앞뜰의 석등에 이르며, 여기에 용의 비늘 모습까지가 나타나있다고 전한다.⁴²⁾ 또한 경내에는 부석(浮石)과⁴³⁾ 선묘정(善妙井)⁴⁴⁾, 선묘각이 있어 설화와 연결되고 있다. 여러 시대에 걸친 이러한 정황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설화의 역사적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신념체계가 부석사와 관련하여 ‘실재’하였다는 것이고 이로써 부석사를 신성한 장소로 만들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청도 적천사(積川寺)의 설화는, 중창 이전에 건립지에 많은 도적 떼가 살고 있었는데, 지놀이 가랑이에 ‘호(虎)’자를 써서 신통력으로 호랑이를 만들어 도적 떼를 쫓았다고 전하며,⁴⁵⁾ 동해 삼화사(三和寺)의 설화에는 세 여신이 호랑이로 변하여, 절을 창건하려는 자장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자장이 주문으로 금강역사를 호출하여 참회시킨 뒤 이들의 화합으로 삼화사를 창건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⁴⁶⁾

이 유형에 속하는 설화들은, 신성한 장소를 미리 선점(先占)하고 있던 불교의 반대세력을, 우여곡절 끝에 축출함으로써 이 자리에 바야흐로 사찰을 창건하게 된다는 틀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이야기 구조를 통하여 사찰은 창건지를 점거한 대립적 존재들과의 투쟁을 통한 보상으로서 신성(神聖)한 권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축출하는 과정이 일상적 무력이나 혹은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이적이거나 주술, 솥과 소금 등의 상징적 정화 수단을 채택하고 있음은 종교적 장치를 통하는 경우에만 신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 설화의 이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신성이 구현된 장소는 세계 속에 유한하다는 인식이다.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는 장소들은 어디에나 무수히 산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장소에 국한된다. 대립적 세력들 역시 이 장소의 점유를 원하는 바,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설화 속의 독룡이나 이교적 무리 등은 불교의 전법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토착세력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들과의 투쟁과 그 승리의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사찰은 탈환된 성지에 건립된 성소로 간주된다. 이질적 존재에 의해 매장되어 있던 신성이 종교적 투쟁

35) 엘리야데, 앞의 책, p.p.191-215

36) 전영진, 앞의 책, p.23. 이종환,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서울, p.156, 1993

37)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契要略錄)에 전하는 내용과 유사함. 이기영 외, 통도사, 대원사, 서울, p.p.19-21, 1991. 전영진, 앞의 책, p.p.345-347. 서문성, 앞의 책, p.58

38) 앞서 소개한 불영사 연기설화와는 다른 판본이다. 한국불교사찰사전, p.289. 최정희, 앞의 책, p.202

39) 최정희, 앞의 책, p.270. 서문성, 앞의 책, p.203

40)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서울, p.169, 1993

41) 한국불교연구원, 부석사, 일지사, 서울, p.p.15-17, 1976. 최정희, 앞의 책, p.166

42) 한국불교문화연구원, 앞의 책, p.19

43) 이종환은 이 부석에 대해 실험기록까지를 덧붙여 신이함을 소개하고 있다. ‘새끼줄을 건너 넘기면 나고 드는데 걸림이 없으니 비로소 떠 있는 돌인 줄 알게 된다. ... 이 이치는 자못 깨달을 수 없다.’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 條. 이익성 역, 앞의 책, p.165

44) (절의) 동쪽에는 善妙井이, 서쪽에는 食沙龍井이 있는데 가물 때 기도드리면 감응이 있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榮川郡 佛宇條. 한국불교문화연구원, 앞의 책, p.19에서 재인용

45) 한국불교사찰사전, p.532

46) 서문성, 앞의 책, p.346

을 통해 복원된 것이다.

3.3 성소의 구축과 신격의 가피(加被)

신성한 장소가 사찰의 건립지로 온전히 확보된 이후, 본격적인 건축 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건축의 과정은 현실의 인간들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성소를 구축하는 소임이 이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은 아니다. 신격의 끊임없는 가피와 지속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공역은 무사히 완수되게 된다.

관촉사(灌燭寺)의 설화는 공역의 난점을 해결해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해명이 거대한 머릿불을 조성하고자 역사를 벌이던 중, 머리, 가슴, 하반신의 세부분으로 나뉘어 조각된 부처를 하나로 쌓아올려 맞추는 일이 문제였다. 궁리에 몰두하던 해명에게 두 아이가 다가오더니, 흙으로 삼등불을 만들고는 하단부 주위에 모래를 경사지게 쌓고 가슴과 머리 부분을 차례로 굴러 올려 맞추는 것이었다. 이에 깨달음을 얻은 해명이 이같이 공사를 명하여 삼등불상을 맞추어 완성하였다. 두 아이는 문수와 보현보살의 현신이라 전한다.⁴⁷⁾

부여 대조사(大鳥寺)에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겸익(謙益)이 꿈에 큰 새가 날아가 관세음보살로 화하는 모습을 보고 산에 올라보니 큰 바위가 황금인양 빛나며 관세음보살로 변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성왕이 사찰 창건을 명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밤이면 신이한 새가 날아와 주위를 밝게 하여 야간에도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한 바, 10년 공역을 5년으로 단축하여 마침내 성왕 10년 초파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⁴⁸⁾

신이한 새의 도움으로 수년간 주야로 공역을 벌일 수 있었으며, 드디어 초파일에 맞추어 낙성을 보고 있다.

공사를 담당한 건축가가 건축과정 중에 신격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경우가 황룡사 구층탑과 석굴암에 얽힌 연기설화에 서술되어 있다. 이로써 건축가는 신의 계시를 받은 신적 대리인의 지위에 오르게 되며 건축가의 작업은 신성의 ‘나투심(顯現)’이 된다.

“황룡사 구층탑의 건립을 위해 백제에서 초빙된 공장(工匠) 아버지는 기둥을 세우는 날, 꿈에 조국 백제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에 마음에 의심이 일어 공사를 멈추었더니,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며 노승과 장사 한 사람이 나와 그 기둥을 마저 세우고 사라졌다. 이에 일을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그 탑을 완성하였다.”(三國遺事 권3 塔像 黃龍寺九層塔 條)⁴⁹⁾

“대성이 석굴암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큰 돌 하나를 다듬어 감실의 덮개돌을 만드는 중에 갑자기 세 조각으로 갈라져 비통해 하다 어렵듯이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천신이 내려와 이를 붙여 완성하고 돌아갔다.”(三國遺事 권5 孝善 黃龍寺九層塔 條)⁵⁰⁾

이상의 설화를 보면, 건축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바야흐로 신격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건축 행위가 비록 인간의 손을 빌어 진행될지라도 그 전체적인 과정은 불신격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다. 결국 연기설화는 사찰(탑)의 창건이 신성한 공역이며, 이를 맡은 건축가 역시 그 본분을 다하여 성소의 완성에 매진해야함을 설교한다. 인간의 손을 빌었으니 신의 뜻(불성)이 ‘역사(役事)’하고 있는 것이다.

4. 희생공회(犧牲供犧) : 성소(聖所)의 완성

이제 사찰 건축의 최종적 결말에 도달할 차례다. 많은 연기설화가 사찰의 물리적 완성으로 끝을 맺고 있으나 여기에 생명의 투여와 헌신의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건축이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생명과 영혼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이때 영혼의 전이는 희생공회(犧牲供犧)를 통하여 이룩된다.⁵¹⁾ 피의 희생이 동반되어 건축에 생명이 불어 넣어지게 되므로 그 것이 영속적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남부 유럽에는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하여 석공 우두머리의 아내가 희생되는 것을 묘사한 대중적 발라드(회합의 아르타다리, 루마니아의 아르케쉬 승원, 유고의 스퀘타리 市 등)가 있어 건축의 성화를 위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⁵²⁾

사찰건축의 과정에도 이러한 언술적 희생공회가 수반되어 사찰을 신성한 불토로 만들어내고 있다. 불국사(佛國寺) 석가탑(일명 무영탑, 無影塔)에도 백제 석공 아사달과 그를 그리워하며 연못에 몸을 던진 아사녀에 얽힌 설화가 전하여 온다.⁵³⁾ 불국사 인근의 영지에 있는 석불 좌상이 아내를 세긴 아사달의 조각이라고 전하여 설화의 실재성을 증명하고 있다. 석가탑 조영의 책임자인 아사달의 아내가 희생된다는 설정인 바, 건축을 만들어낸 장본인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대상이 건축물에 이월됨으로써 신성이 오롯이 획득되고 있다. 건축의 완성과 동시에 제공된 최상의 희생으로 인하여 건축이 지닌 신성성은 극대화되며 그 예술성 또한 숭고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유사한 서사구조를 갖는 이야기가 황룡사 9층탑에 얽혀 전해진다. 앞서의 언급에 이어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 장인 아버지가 마침내 탑을 완성하였으나 조국을 망하게 하는 탑을 세웠다는 자책에 못 이겨 그만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한다. 뒤 이어 그를 사모하던 아미낭자마저 물 속으로 뛰어 들고야 만다.⁵⁴⁾

죽음을 택한 아버지의 고뇌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황룡사 9층탑이라는 전무후무의 거대한 불사를 이루어낸 후에 맞이하는 건축가의 죽음은 의미심장하다. 건축가 바로 그 자신의 생명이 건축의 제단에 바쳐져 비로소 탑의 신성이 확보된 것이다. 이로써 건축은 창건자의 생명을 고스란히 부여받게 되며 그리하여 영속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뒤이은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으로 황룡사탑의 연기설화는 문학적 향기마저

47) 한국불교사찰사전, p.61. 최정희, 앞의 책, p.76. 서문성, 앞의 책, p.249

48) 한국불교사찰사전, p.127. 서문성, 앞의 책, p.260

49) 이민수 역, 앞의 책, p.277

50) 위의 책, p.498

51) 엘리야데,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서울, p.216, 1991.

52) 엘리야데, 이동하 역, 신평과 俗-종교의 본질, 학민사, 서울, p.p.49-51, 1983

53) 한국불교문화연구원, 불국사, 일지사, 서울, p.p.59-60, 1974

54) 최정희, 앞의 책, p.p.227-230

지니게 된다.

화엄사(華嚴寺) 장육전(丈六殿, 지금의 각황전)에도 중건에 얽힌 회생 설화가 전승된다.

각황전 중건의 소임을 맡은 계파가 산문 밖에서 한 노파를 만나 사정을 말하니, 노파는 '이 몸이 죽어 왕궁에 태어나 불사를 이룩하리라'고 말하고 늙은 몸을 던지었다. 계파가 놀라 도망쳐 몇 년을 보내다가 한양에 이르니, 궁 밖을 소요하던 어린 공주가 반가이 달려와 계파가 안아주자 태어나면서부터 퍼지지 않던 손이 퍼지고 손바닥에는 '丈六殿'의 글자가 나타났다. 몸을 던진 노파가 공주로 환생하여 장육전 건립의 원력을 받은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왕이 사액(賜額)을 내려 각황전을 짓게 되었다.⁵⁵⁾

이야기에 등장하는 숙종에게는 공주가 없었으므로 설화의 역사성은 의심받게 되나 장육전의 중건에 왕실이 대시주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⁵⁶⁾

이 같은 구성은 철원 심원사(深源寺)의 연기설화에서도 반복된다.

묘선(妙善)이 절의 중창을 위해 백일기도를 드리던 중 꿈에 부처가 나타나 '아침 일찍 화주를 구하러 떠나 맨 처음 만나는 이에 중창의 시주가 될 것을 이르라'고 전한다. 아침에 일어나 머슴 박씨를 만나게 되어 사정을 이르니, 머슴살이로 모은 재산을 회사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심원사의 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했더니, 박씨가 그날 이후 앓기 시작하여 죽고 말았다. 묘선이 자책에 못 이겨 법당의 부처를 도끼로 내리찍고는 방랑하기를 30여년에 이르렀다. 심원사 부처 이마의 도끼가 빠지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묘선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에 돌아와 보니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가 돈독한 불심으로 삼베를 올린 후 마침내 도끼를 뽑는다. 이 광경을 본 묘선은 머슴 박씨가 사또로 환생하였음을 알고 차조지종을 밝히니, 사또와 묘선이 함께 중창 불사를 완수하게 된다.⁵⁷⁾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부석사(浮石寺)에 얽힌 설화에서도 바다에 투신하는 선묘의 회생이 제시되고 있다. 살려본 다섯 개의 연기설화는 모두 죽음의 회생을 통하여 사찰(탑)의 지극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⁵⁸⁾ 건축을 살아있는 것, 영속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게 되며 이때 설화는 실제의 생명을 바치는 제의를 대신하여, 가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회생공회를 실행한다. 현세 중생의 마음과 영혼을 건축에 투여하여 그 인과(因果)에 의해 불교적 신성이 확보된다는 설정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위 설화 속의 회생 과정이, 심원사의 것을 제외하면 모두 물에 빠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이란 미정형의 가능성이자 재탄생의 모태이다. 화엄사의 노파는 물에 빠짐을 통하여 각황전을 이룩하는 공주로 환생하였고, 아사녀의 투신은 마침내 석가탑의 완성을 이루었다. 아버지, 아미낭자, 선묘 역시 물에 빠지는 회생을 통하여 황룡사탑과 부석사라는 건축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물이 지니는 원형적 창조 의 이미지를

55) 한국불교문화연구원, 화엄사, 일지사, 서울, p.p.89-90, 1976. 서문성, 앞의 책, p.180

56) 최완수, 명찰순례 2권, 대원사, 서울, p.p.54-55, 1994

57) 최정희, 앞의 책, p.336

58) 건축물은 아니지만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과 관련한 어린아이의 회생설화도 이와 동일한 구조이다.

회생 설화의 구조에 삽입하여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5. 結

창건연기설화는 일상적인 속(俗)의 세계에서 특정한 영역을 한정하여 그 장소를 질서화 함으로써 사찰이 신적 권위를 가진 '영험(靈驗)한' 공간임을 선포하는 언술적 방편이다. 따라서 사찰 터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일상을 초월한 신령한 관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처와의 직접적 인연이 상징되거나, 신적 권력을 지녔거나 혹은 이를 대리한 존재가 개입되기도 한다. 성소의 구축 과정에서 장소의 점유를 둘러싼 종교적 투쟁이 전개되어 공간의 질서가 재획득되는가하면,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신격의 향상적 가피가 이루어진다. 구축된 건축에 영속적인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 생명의 헌신이 마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초월적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곧 사찰연기설화의 몫이다. 물론 하나의 연기설화가 이 모든 과정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상징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은 단 한순간, 단 하나의 계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연기설화는 사찰의 신성함을 선포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를 통하여 사찰 건축은 성소로서의 권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설화들은 구비전승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생되어 사찰의 신성을 끊임없이 유지, 확장시킨다. 연기설화를 통하여 사찰이 종교적으로 완성됨과 동시에, 사찰은 설화의 물리적 실현을 보증한다. 황룡사의 석물이나, 미황사의 반야용선 상징, 부석사의 선묘관련 유적과 통도사의 구룡지 등 사찰에 존재하는 많은 물리적 요소들이 설화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기도 한다.⁵⁹⁾ 이와 같이 연기설화와 사찰은 신성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에 놓인다. 창건 연기설화는 언술을 통하여 사찰에 신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사찰은 연기설화를 물리적 실체로서 완성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一然, 이민수 역,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서울, 1994
2. 李重煥, 이익성 역, 撰里志, 을유문화사, 서울, 1993
3. 최정희, 한국불교전설 99, 우리출판사, 서울, 1986
4. 전영진 편, 한국사찰에 얽힌 이야기, 보경문화사, 서울, 1994
5. 서문성 편, 전통사찰의 창건설화, 도서출판 窓, 서울, 1997
6. 이정 편,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서울, 1996
7.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서울, 1991
8. L.K.뒤프레, 권수경 역,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서광사, 서울, 1996
9. 엘리야데, 박규태 역,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서울, 1991
10. 엘리야데, 이동하 역, 聖과 俗-종교의 본질, 학민사, 서울, 1983

(接受: 2004. 9. 20)

59) 이외에도 사찰이나 전각의 명칭이 설화의 진실성을 유추시키기도 한다. 기림사, 삼화사, 범어사, 굴불사, 미황사, 황룡사 등의 무수한 사찰이 연기설화로부터 유래된 이름을 지니고 있다.